

올 사우회 살림 긴축예산으로 편성

지출 가운데 경조비 18%, 동호회 활동지원비 10% 차지
고령화 추세 맞춰 90세 축의금 신설, 60세 축의금 조정 필요성 제기



이날 총회에는 회원 146명이 참석했으며 326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2.25 사원 정기총회서 확정

MBC사우회 올 예산이 2억 6,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사우회는 2월 25일 정동 이빠네마관광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과 2011년도 수지예산안을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200만원 정도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보험 알선 수입과 은행예금 이자가 줄어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지출항목 가운데서는 경조비가 7

천 여 만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 지원비도 2,700여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이연현 상임부회장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듯 사우회 회원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90세 회원들에 대한 축의금 지급문

제를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부회장은 이에따라 지출예산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입회 회원들에 대한 회갑축의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무처는 여러 안을 검토해서 차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146명이 참석했으며 326명은 위임장을 보내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김재철 MBC 사장 연임

“MBC 경쟁력 제고에 최선 다하겠다”

MBC 김재철 사장이 연임됐다.

김사장은 2월 16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뒤 다음 날인 17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김사장은 MBC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14년 까지 3

년이다.

김사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79년 MBC 보도국 기자 14기로 입사해 도쿄특파원, 보도제작국장을 거쳐 울산MBC 사장, 청주MBC사장을 역임했다.

김사장은 2010년 2월 엄기영 전 사장의 후임으로 사장에 오른 뒤 올해 2월까지 엄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 1979년 MBC 보도국입사
· 1994년 도쿄특파원
· 2004년 보도제작국장
· 2005년 울산MBC사장
· 2008년 청주MBC사장
· 2010년 MBC사장

강영구회장, 방문진 김재우이사장과 상견례

이연현 상임부회장, 백하현 이사, 최창영 방문진 처장 등 배석



MBC사우회 강영구 회장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

사우회 강영구회장과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이사장이 4월 11일 여의도 63빌딩 일식당 슈치쿠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회장은 방문진이 MBC의 대주주로서 MBC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했고 김이사장은 사우회가 퇴직사우들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매개체로서 구심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사우회에서 이연현 상임부회장과 백하현 총무이사, 최창영 방문진 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여의도 본사에 사우 쉼터 ‘社友舍廊’ 오픈

MBC 3층에 퇴직사우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됐다.

MBC 총무부는 김재철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보6호 기사참조) 1월 한달동안 공사를 벌여 3층 중정원 발간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퇴직사우들을 위한 휴게실 ‘社友舍廊’을 오픈했다.

‘社友舍廊’은 5평 정도의 넓이에 책상과 의자 TV수상기, 냉장고등 집기비품이 갖추어져 있다.

MBC 총무부는 사우회 회원을 포함한 퇴직사우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경우 회사 출입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우 회원 자녀 결혼식때 MBC사장 축하 화환

MBC 경조비 지급기준 개정

MBC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우회 회원의 자녀가 결혼할 때 MBC사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배송되고 있다.

MBC 총무부는 사내-외 경조비 지급 기준을 개정해 올 1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본사와 관계회사

임원을 지낸 회원에게만 축하 화환이 배송됐으나 이번에 대상범위를 넓힌 것이다.

MBC사장 명의의 축의금은 종전처럼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MBC 아카데미

방송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합 미디어 스쿨



- 교육과정 :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TV카메라, 성우, 작가등 총 34개 과정
- 홈페이지 : www.mbca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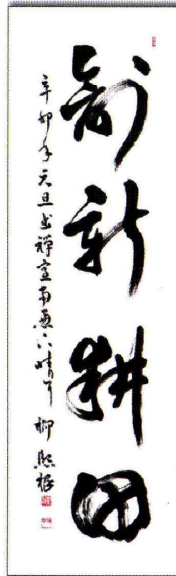
사우회특점



최우 유 희 근
前 전주 MBC 사장

“여보게 유 사장, 나 요즘 자네한테 배운 붓글씨로 아주 멋있게 지내고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회장님” “결혼식장에 가면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가? 그런 때 나는 붓처럼 생긴 붓펜을 가지고 가서, 내 이름을 한자로 멋지게 쓰면 모두들 놀란다...”
“그리고 손주녀석들, 설날에 세배돈 줄 때나 생일날 용돈 줄 때, 봉투에 근하신년 또는 축생일 이렇게 한자로 멋지게 써주면 나를 아주 존경하는 눈치로 본다고...”
대기업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지 3년 된 김 회장, 그동안 열심히 붓글씨를 배웠더니 노후를 이렇게 멋지게 보낸다니 자랑한다.
인사동에서 필방점포 사장에게 물어본다.
“너도나도 장사 안된다고 야단인데, 여긴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글쎄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노인 주면서 뜻을 많이 찾아와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뭔가 소일거리가 없나 고민하다가 붓글씨를 배우겠다면서 필방을 찾는다고 한다.
퇴직한 임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건물에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많다.
강사로나 운영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문화원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쩍 늘었다. 수강료도 저렴하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붓글씨 열풍이 불고 있다.
취미생활로 틈틈이 붓글씨를 배우지 5년된 친구가 있다.
박 사장이라 불리는 그는 송년회다 신년회다 각종 모임에서 특별연사로 인기 1순위로 한다.
마이크를 주면서 꼭 한마디 해 달라고 권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자기가 직접 쓴 서예작품을 보여



장실에 걸었다면서 작품을 요청하고 자랑한다.

노후 행복은 붓글씨에 맡겨라

설명하고 붓글씨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척 관심 있게 듣는다고 한다.
유명한 시인 목재들의 한시를 읊어주면서 우리 인생과 비교 설명해 주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더라고 말한다. 멋지게 표구한 작품을 현장에서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도 한다고 자랑한다.
박수가 끝나자마자 한 장 써 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면서 노후가 즐겁다고 말한다.
또 다른 친구가 있다.
최 사장이라 불리는 그는 서예를 배우지 7년 됐다.
최 사장은 여러 단체로부터 신년특집으로 신춘회보를 부탁 받는다고 한다.
회장실과 사장실,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 원

대학교수 정년퇴임식에서도 휘호를 전달한다면서 자기는 붓글씨를 배운 덕택에 노후 인생이 즐겁다고 말한다.
5년 된 박 사장이나 7년 된 최 사장이나 두 사람 모두 붓글씨를 배울 때 “에이 내가 멋하러 이런 것을 하느냐”면서 붓을 수십 번 던졌다고 한다.
“내가 재주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걸 시작했냐” 하고 후회를 몇십 번 했다고 한다.
“붓글씨 해서 돈 벌지도 아니고,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멋하러 하느냐”면서 여러번 단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붓글씨 배우기를 아주 잘 했다고 입을 모은다.
붓글씨 덕택에 사회 저명인사들과 접촉도 많아지고 가족들이 자기를 멋진 할아버지로 보아 주니까 기분이 좋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노후 행복은 붓글씨에 맡겨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붓글씨로 노후에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創新耕田장신경전 새롭게 창조하고 갈 거다.

MBC 업무 효율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

유사부서 통폐합 8본부-24국-87부 체제로 슬림화
편성제작본부 산하에 시사교양국, 크리에이티브센터 신설

MBC는 2월 23일 기존 7본부 22국 104부에서 8본부 24국 87부 체제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MBC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17개 부서를 감축함으로써 비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조직구조를 슬림화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MBC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TV제작본부를 드라마-예능본부로 재편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제작본부로 옮겼다.

드라마-예능본부는 드라마와 예능에 집중함으로써 콘텐츠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본부에서는 생활과학부와 문화부가 문화과학부로, 라디오뉴스부와 편집2부가 편집2부로, 네트워크부와 수도권부가 네트워크부

로 통합했다.

디지털본부에서는 제작기술부와 영상기술부가 제작기술부로 통합되고,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총무부와 안전관리부가 통합됐다.

참신한 콘텐츠를 집중 개발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크리에이티브센터’는 드라마-예능-시사교양 제작 부서에 흩어져 있던 콘텐츠 기획-개발 부서들을 통합한 콘텐츠 개발 전담국으로, 산하에 행사 및 사업기획 인력을 두어 콘텐츠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또 편성본부 아래에 있던 ‘사회공헌부’를 ‘사회공헌실’로 확대해 사장직속부서로 이전했으며, 올해 문화방송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나눔’과 관련한 각종 사회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신임
본-관계사
임원 명단

 안 광 한 부사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82년 1월 편성국 입사 1997년 4월 편성국 영화팀장 2006년 3월 편성국장 2010년 2월 편성본부장	 백 중 문 편성제작본부장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양대 방송영상학 석사 1984년 12월 편성국 입사 2002년 3월 시사제작국 사제직 2008년 3월 편성국 TV편성부장 2010년 3월 편성국장	 전 영 배 보도본부장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1984년 1월 보도국 입사 2000년 7월 파리 특파원 2009년 3월 보도국장 2010년 3월 기획조정실장
 장 군 수 드라마예능본부장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1984년 1월 TV제작국 입사 2005년 10월 드라마국 20P 2010년 3월 드라마국 드라마2부장 2010년 9월 드라마국장	 이 우 철 디지털본부장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업 연세대 전자공학 석사 1984년 12월 방송7국 입사 2002년 3월 TV총괄부장 2009년 2월 송출7국국장 2010년 3월 디지털본부장	 차 경 호 기획조정본부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 문학 석사 1984년 12월 보도국 입사 2002년 6월 보도국 해외특파원 2009년 4월 보도국장 2010년 3월 보도본부장
 고 민 철 경영지원본부장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4년 1월 총무국 입사 2001년 3월 총무국 인사팀장 2008년 3월 기획조정실 인사팀장 2010년 3월 경영지원국장		

■표는 신임 임계사 임원

‘매일 수요일 하루는 비워주세요’

등산4/20(수)-낚시5/4(수)-골프5/13(금)-양주단합대회5/18(수)-바둑6/15(수)

동호회 일정 확정

사우회 주관 봄철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사우회는 올해 첫 행사인 등산대회를 4월20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등산대회는 북악스카이웨이 길을 따라 걷는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출구로 나와 30M쯤 직진한뒤 1162번 버스를 타고 10분쯤 가면 하늘공원 정류장(중정)에서 내려간다. 이곳에서 인원을 점검한

뒤 정각10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시조회를 겸한 낚시대회는 이보다 2주일 뒤인 5월 4일(수)에 실시한다.

장소는 김포와 강화일대 사전답사를 거쳐 결정하며 당일 출발전 통보한다.

골프대회는 5월13일(금)에 충주 중앙골프장에서 티업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4월25일(월)까지 사우회 사무처로 신청하면 된다.

사원 단합대회는 사우회 창립기념일인 5월18일(수)에 양주 문화동산에서

개최하며 바둑대회는 6월 15일(수)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갖는다.

봄철행사중 가장 늦게 실시하는 원로회원 산업시찰(문화탐방)은 6월22일(수)에 떠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행사는 등산모임(화요일)과 바둑모임(목요일) 날짜를 피하려다 보니 골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사우회 행사에 참석하실 회원들께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일 일정을 비워두셔야 할 것 같다.

계열사 사장

- 부산문화방송사장 : 김수병
- 대구문화방송사장 : 박영석
- 광주문화방송사장 : 서경주
- 대전문화방송사장 : 고대석
- 전주문화방송사장 : 선동규
- 창원문화방송사장 : 김중국 (겸임)
- 진주문화방송사장 : 김중국 (겸임)
- 춘천문화방송사장 : 김재현
- 청주문화방송사장 : 윤정식
- 충주문화방송사장 : 윤정식(겸임)
- 제주문화방송사장 : 정 준
- 울산문화방송사장 : 소원영
- 강원문화방송사장 : 임무혁
- 삼척문화방송사장 : 임무혁 (겸임)
- 목포문화방송사장 : 김성수
- 여수문화방송사장 : 송원근
- 안동문화방송사장 : 이윤철
- 원주문화방송사장 : 한귀현
- 포항문화방송사장 : 강성주

자회사 사장

- MBC프로덕션사장 : 황희만 (겸임)
- MBC미디어텍사장 : 황희만 (겸임)
- MBC아카데미사장 : 이주갑
- MBC미술센터사장 : 조중현
- iMBC사장 : 손관승
- MBC플러스미디어사장 : 안현덕
- MBC스포츠사장 : 안현덕 (겸임)
- MBC플레이비사장 : 최성금

자회사 이사·본부장

- MBC프로덕션 : 홍순관 (파견, 본부장)
- MBC미디어텍 : 천복용 (파견, 본부장)
- MBC아카데미 : 강영은 (파견, 본부장)
- MBC미술센터 : 홍영의 (이사)
- iMBC : 김윤성 (파견, 본부장)
- MBC플러스미디어 : 장재욱 (이사)
- MBC스포츠 : 유재근 (이사)

이 사람!

기술 이근수

“복지단체 운영 위해 14년간 쉬지 않고 뛰어다녔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10여 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97년 사재를 털어 사회복지 단체 ‘열린 자리’를 설립한 이근수 회원. 단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맨발로 꽃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5명의 상주 직원이 있고 꽃 관리를 위해 200㎡에 달하는 비닐하우스 두 동도 마련했다.
 “3년간 노력한 끝에 법인 허가가 났는데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익 사업이 필요했어요. 이것 저것 알아보면 중에 장례식이나 연회장 등에서 화환을 수거해 상품 가치가 있는 꽃을 따로 관리한 후 다른 업체에 팔면 꾸준한 수익이 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상 알아보니가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으로 직접 부딪쳤죠.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어요. 아마 단순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였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도 현장에 직접 나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한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야 편하다는 그는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 5~6시쯤 집을 나서 밤 11시나 돼야 퇴근한다. 지난 14년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회사 다닐 때는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한 이후에는 여행은 커녕 휴가조차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걸 보니 휴가는 더 미뤄야 할 것 같네요.”
 지난 97년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다. 회사를 다니면서는 복지단체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가 설립한 복지단체 ‘열린 자리’는 현재 80여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복지단체다. 관장을 맡아 운영에 직접 참여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설립 이사장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설립 당시 그가 세운 원칙이었다.
 “신학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학 대학원에 다녔어요. 그 때 알게 된 목사님과 뜻이 맞아 복지단체 설립을 준비하게 됐죠. 그러다보니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계획을 갖고 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때 가장 해야 했고 원했던 일을 한 것 같아요.”
 복지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

끝없는 봉사 이번엔 장애인 자립 돕기 일자리 위한 교육단체 설립

면서 그는 장애인 자립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한국 장애인 자립본부를 설립해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단체인 셈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는 시골에 집을 지어 오갈 데

사재 털어 복지단체 설립 회사도 명퇴

운영 자금 마련위해 장례식장 등 돌면서 화환 수집

없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면서 지내는 삶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복지단체를 설립하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힘들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
 “아직도 욕심이 나서 가끔 땅을 보러 다니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결국 다른 일을 하게 됐죠. 시골 생활의 여유를 꿈꿨는데 지난해 여름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막상 육체노동을 해보니 이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였던 거죠. 하는 일을 언제쯤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 아직은 꿈으로 남아 있어요. 그 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중국 실크로드와 몽골, 시베리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漢文공부 동호회 발족

한문공부 동호회가 발족했다.
 한문공부 동호회는 3월3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한문공부 동호회를 발족 시키기로 한 뒤 3월10일(목요일) 10:00에 ‘通鑑節要’를 교본으로 첫 수업을 실시했다.
 ‘通鑑節要’는 周나라 威烈王부터 後周 顯德 5년까지 1362년간의 史蹟을 編年體로 엮은 通史이다.
 한문공부 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에 사우회 사무실에 모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월 15일 현재 6번째 수업을 진행했다. 한문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이진세(훈장), 한박무(간사), 김세중, 박종원, 이용구, 박종규, 양진수, 조성식, 김진홍, 조한건, 권혁화
 한문공부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누구나 간사(한박무 010-9105-1412)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로써 MBC사우회 동호회는 등산-낚시-골프-바둑클럽에 이어 5개로 늘어났다.

고전속의 지혜 ①

魏나라 文侯왕이 신하 李克에게 정승 추천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居視其所親하며富視其所與하며
 達視其所舉하며窮視其所不爲하며
 貧視其所不取니五者足以定之矣나이다.

거처할 때에는(명소에는) 그(부도형제 친구 등 주변) 친한 바를 살펴보면 부유할 때에는 그 베푸는 바를 살펴보면 영달했을 때에는 (사람들) 천거한 바를 살펴보면 곤궁할 때에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그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는 그 취하지 않는 바(가로 채지 않는 바)를 살펴보아야 하니, 이 다섯가지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SAY

사우회, 거기가 우리들의 세시봉



김용현
전 MBC방송문화연구위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아직도 ‘세시봉 콘서트’를 화제로 삼는다. 서울에서 설날 특직으로 방송된 것이면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그 감동에서 벗어나

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과 낭만을 뒤로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중년을 훌쩍 넘긴 이민자들에게 그것은 그대로 눈물이고 향수였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의 한국인치고 순탄한 삶만 살아온 사람이 흔치는 않았지만 나이 60대, 70대가 된 해외 이민자들은 참으로 고달픈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타로의 떠나온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기 뜻으로 이민을 왔기에 누구를 탓하지는 않았어도 이질 문화에 적응이 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칠 때면 하루에도 몇차례

씩 ‘돌아갈까, 돌아가’를 다짐했는 지 모른다. 그렇게 어느새 20년, 30년의 이민 햇수를 채우다가 젊은 시절은 후박 지나가 버리고 성장한 아이들은 결혼해서 가깝지도 않은 동부, 서부로 멀리 떠나가 버리자 새삼스럽게 어버이런 중년과 외로운 노년의 서러움이 밀물처럼 가슴을 쓸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 MBC의 프로그램 ‘세시봉 콘서트’를 만난다. 낯익은 통기타가 수들이 들려주는 익숙한 노래들과

‘돌아갈까’를 되뇌이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익숙한 노래 듣고 두고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 복받쳐

그들의 협단을 겸한 구수한 이야기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민자들은 오래된 우정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두고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적신다. 그것은 익숙한 것에 관한 큰 충격이었다.

오래된 우정은 귀중한 냄새가 나도록 약취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버리지 못할 뭔가를 갖고 있는 누룩같은 것이라고 할까, 사우회는 오래된 우

정의 결집체다. 만나면 반갑고 시기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고 그저 서로 격려해주고, 인사로 하는 말 일지라도 ‘당신은 늙지 않고 그대로야’ 하면 얼마나 반가운 일인데...

미국에서 MBC 사우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은 꼭 30년전의 일이다. 70년대 초부터 로스앤젤레스에 몇 분의 사우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80년 언론인 해직사태 이후 해직자들이 줄서서 이민되면서부터였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1년 가을, 30 여명의 사우들이 모여 이름을 ‘MBC 가족회’로 정한 뒤 초대 문화방송 경향신문 지사장인 김준철 전 보도국장을 회장으로 모시고 ‘추운 사람들이 서로 등을 부벼 가며’ 얼마나 정겹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즈음 우리는 시골 중학교에서 문예지 만들듯 등사판 신문을 제작해 돌려 보곤 했는데 그 신문을 통해 이

미주지회 동신

민 정보를 나누고 사우들 간의 경조사를 챙기는 한편 평계를 만들어 자주 만나는 사이 우리들의 인사동무 용담과 정동의 추억담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었다.

90년대 초 ‘MBC 가족회’를 ‘사우회 미주지회’로 발전시킨 다음에도 우리 사우회는 다른 이민자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그야말로 끈끈하고 정스러운 독특한 분위기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공백기가 있었으나 지난해 여기서 출신의 이은혜씨가 회장이 되면서 사우회 미주지회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마치 60년대 말 MBC에서 ‘라디오 르네상스’가 있었듯이 지금 이곳에서는 사우회 미주지회의 르네상스대를 맞이한 기분이다. 오래된 친구는 귀한 보배다.

서울에서 통기타 가수들이 다시 일선 것처럼 이 봄에 우리들 MBC 사우들도 모두 우정을 회복하며 활기 있게 살아갔으면 한다. 거기가 우리들의 세시봉일 것을 꿈꾸면서...

경조사항

결혼

장석호(보도)장녀 1/23 정태일(편제)장남 1/23 정길용(보도)딸 2/26
권오형(업무)차녀 2/26 권상규(관리)딸 2/26 민영기(관리)아들 3/12
김연두(관리)장녀 3/12 천영숙(편제)아들 4/08

부음

안재기(보도)모친상 1/13 이태림(업무)장모상 1/15 권혁준(편제)장모상 1/15
이상수(관리)장모상 1/18 이원형(업무)부인상 2/17 이강식(관리)모친상 2/11
김재욱(관리)장모상 2/25 남기두(대구)모친상 3/03 마병두(편제)모친상 3/05
이문노(보도)장모상 3/07 이승상(미주)모친상 4/06

- 서건석(전주)회원 2월9일 심근경색으로 별세. 향년 71세.
15년전에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바 있으며 5년전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왼쪽눈이 거의 실명상태. 타계직전에는 고혈압등 지병이 악화돼 타계.
- 조광식(보도)회원 2월17일 골수암으로 별세. 향년 73세.
지난해 3월 대장암 진단을 받고 9개월동안 치료했으나 차도가 없자 12월에 재검진한 결과 골수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치료중 2개월 만에 타계.
- 김억천(관리)회원 뇌출혈로 별세 향년 74세.
지난해 5월 사우회 단합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으나 1주일 뒤에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동안 투병하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타계.

경사

팔순 | 이상필(관리) 4/03 박기병(관리) 5/20 조혜숙(관리) 6/09 임성기(편제) 6/19
전웅덕(보도) 6/20

고희 | 이영일(편제) 4/02 장 경(보도) 4/02 고재원(관리) 4/07 송재익(ANN) 4/11
강효섭(대전) 4/20 김진영(편제) 4/20 황용하(관리) 4/28 박준하(관리) 5/01
박해선(대구) 5/03 심규성(관리) 5/11 오상돈(기술) 5/29 김성희(편제) 6/03
황수석(전주) 6/04 심재주(관리) 6/09 채규익(관리) 6/20

회갑 | 조한건(관리) 4/30 김진홍(관리) 5/01 최영식(관리) 5/01 방남순(ANN) 5/02
조한준(전주) 5/09 김경태(편제) 5/13 박창순(대전) 5/14 김희숙(관리) 6/03
오순희(관리) 6/13 지복현(편제) 6/19

신규입회

01/18 朴春平(편제) 010-9199-5761, 02-458-1419 광주구 구의3동 세양A 101-1103
01/19 黃熙晚(보도) 010-5287-1585, 마포구 신공덕동 155 삼성래미안 109-802
01/20 金漢斗(관리) 010-8783-4949, 02-3463-5122 강남구 도곡동 895-8 도곡한신A 2-1202
01/28 南幸廷(관리) 010-8944-2140, 032-263-2645 인천시 서구 불로동 신명A 107-303
01/28 房基天(기술) 010-9210-0480, 02-455-9807 광주구 구의3동 592-39 한양빌라 3-303
01/28 李相芸(기술) 010-9105-3210, 010-6350-3685 강남구 압구정동 464 현대A 61-807
02/09 李盛豪(편제) 010-8955-3859, 02-2653-1217 마포구 용강동 149-46 (302호)
03/23 金永韓(관리) 010-2697-0128, 02-889-0040 관악구 삼성동 395-52
03/28 曹仲鉉(편제) 010-3741-6433, 031-976-2529 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 중산마을 906-202
03/30 張秀鳳(편제) 011-9142-5300, 02-2678-0260 영등포구 영중로154 당산푸르지오 106-1401
04/01 尹植植(보도) 010-9105-2525 02-3453-7066 강남구 대치동 선경A 7-1204
04/04 蘇元永(편제) 011-742-5272, 052-276-3904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501-1104
04/04 李重炯(관리) 010-9199-5719, 02-2202-1816 송파구 잠실3동 갤러리아캐슬 A-1901

전화/주소변경

|편제|
권오용 010-3702-8811
김경식 양천구 목4동772-11 스카이라 101-505
김영철 010-3741-2130
류월상 010-9273-6033
평택시 안중읍 삼정1리23-4
박병선 031-242-7135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49-2203
심우승 010-8955-3767
이동섭 010-8208-3671
이병훈 010-9943-4191
이임생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7 정자아이파크 603호
임영택 010-8987-1661

|보도|

정국록 010-3856-2000
정홍보 322-9571
마포구하 중동102 한강밤샘자이A 104-2102

|ANN|

백명순 010-6567 1507
정연호 010-9105-1370 031-977-2527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1227-129
MBC빌리지 26호

최화숙 송파구 방이동182-2 대양코리아나타워 1001호

|기술|

김광곤 010-3731-5854
강남구 논현동 39-23(501호)
김철동 010-5227-7375
김희을 010-4604-2618

|업무|

이두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A 101-1802
차기동 070-8615-9589
용인시 기흥구 중동 여정마을 106-1502
황귀철 010-8395-7762

|관리|

고재원 010-3067-7461
권상규 010-6237-5659
권재욱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945(석천정)
김병수 010-3599-2939
박삼열 010-3729-1673
송석철 영등포구 여의나루길37 문화방송중앙감시실
신건옥 010-7389-0154 02-2051-9662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류철환(편제) 1/18 김재천(관리) 1/19 이진배(관리) 1/19 황희만(보도)1/19
이길범(관리) 1/20 김연두(관리) 1/20 박진홍(편제) 1/24 이창우(편제) 1/28
남행정(관리) 1/28 방기천(기술) 1/28 이상운(기술) 1/28 김영만(관리) 2/11
이건식(관리) 2/14 이상길(관리) 2/15 오범성(관리) 2/15 권영삼(관리) 2/17
송석철(관리) 2/23 이병훈(편제) 3/04 김세영(편제) 3/04 김영한(관리)3/23
조중현(편제) 3/28 정홍보(보도) 3/28 윤정식(보도) 4/01 소원영(편제) 4/01
이중형(관리) 4/01 이재갑(편제) 4/07 배대윤(보도) 4/07 주철환(편제) 4/07

연회비

|1월 고병조(11) 고영석(06~10) 고창근(11) 권상규(10~11) 권태규(11)
김진영(06~10) 김광안(11) 김동한(97~10) 김상호(11) 김세영(06~10)
김승수(10~11) 김우룡(06~10) 김윤근(11) 김영금(03~10) 김영기(11~15)
김재수(07~11)김종대(11) 김종오(10~11) 김중환(11) 김중석(06~10)
김철동(05~11) 김태경 (04~10) 김후선(11) 류철환(06~20) 민경창(11)
박경식(09~13) 박기윤(11) 박용근(11~20) 박준평(11) 박태환(08~13)
배상호(11) 백명순(10~11) 손영조 (11) 신정후(06~10) 신형창(11) 안철환
(06~10) 여태성(06~10) 염영수(11) 우종범(06~10) 유근혁(06~10) 유홍렬
(09~11) 유홍철(11) 이진세(12~14) 이병수(10~11) 이병석(11) 이상원(11)
이성구(11) 이영생(11) 이영호(11) 이완수(11) 이은명(11~14) 이재인(11)
이중화(11) 이창식(10~11) 이창호(11) 이처경(10~11) 이한익(11) 임창영
(11~17) 전용학(02~10) 전용덕(06~10)정동영(대구,11) 정봉일(11) 정상화
(11) 정치조(11~15) 정형진(11) 정호준(11) 지덕환(01~10) 진필호(05~10)
차명륜(11) 최영달(06~10) 최호철(11) 하민웅(10~11) 하순봉(11) 허명강
(03~10) 홍이표(11) 홍학표(10)황의철(11~12) 황재원(06~10) 황진환(11)

|2월 강병남(01~10) 강복주(11) 강준오(06~10) 강철용(10~11) 권영삼
(07~10) 김병택(11) 김부영(11) 김성기(10~11) 김성조(97~17) 김성호
(10~11) 김영균 (10) 김영근(08~11) 김영만(06~10) 김영재(08~09) 김용빈
(11) 김원기(10~11) 김점용(11) 남기두(11) 노범호(11) 노성석(11)
노종규(10) 류근수(11) 맹광호(10) 문성수(11) 민상근(05~10) 민영기
(09~13) 민용기(08~13) 박순웅(11) 박연식(11) 박종진(09~11) 백낙왕(11)
백중석(11) 서기석(12~14) 서상규(11) 서성하(10~11) 서정호(11) 성준현(11)
송재선(11) 신무성(11) 안병태(11) 안호선(10) 양경운(09~11) 양남중(11)
엄기원(11) 엄용열(11) 오두영(11) 윤남현(11) 윤상준(11) 이진식(09~10)
이상근(06~11) 이상림(11) 이성일(11) 이성호(11) 이양길(10) 이웅재(10)
이원하(10~14) 이재인(11) 이종구(11) 이종철(11) 이주열(11) 이종광(11)
이하결(11) 인우삼(12) 임영규(10~11) 장두원(09~10) 전지웅(10~11)
정경수(12~13) 정명환(11) 정석진(11) 정승호(11) 정준모(11) 정 진(12)
정진도(11) 조광식(10) 조성식(11) 조한건(12) 차기동(11) 차인태(09~11)
차효석(08~10) 채애림(09~11) 최경미(06~10) 최영성(11) 한웅희(11)
홍순영(11) 홍의연(01~08) 황귀철(08~12) 황수석(04~11)

|3월 강현식(11) 김강정(12) 김경식(98~06) 김병문(11) 김세일(11~12)
김양배(08~11) 김재욱(11) 박삼열(09~11) 방운식(10~12) 배성룡(11)
변현규(11~13) 심상수(10~11) 유삼열(06~20) 이기선(11) 이용규(11)
장수봉(11) 장영배(09~11) 조무영(11) 홍윤호(11~12) 황길수(08~12)

임무혁 033-651-7007
강릉시 교1동 롯데캐슬A 203-501
장용택 010-3723-3293
전지웅 019-9154-5476 031-575-7980
조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30-2 삼부A 11-23
최규두 010-8337-4436
최문주 010-2901-6663
허경희 노원구 상계5동 벽산A 104-704
황의철 010-6302-6201
홍명표 010-5050-0091

|부산|

하재률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36-8 삼익퓨처타워 102-201

|대구|

윤현곤 대구시 동구 신천동622 휴먼시아 603-1405
이상원 010-3555-1070
이영호 010-2810-5050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390-5

|전주|

황수석 010-3675-9896

차 한 잔 “역사속 이야기를 지금도 유효한 살아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

드라마 감독 이 병 훈



2월 28일 제2회 '서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감독대상을 수상했다.

“동이” 끝나고 처음 두 달 동안은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계속 잠만 잤어요. 1년 가까이 하루 평균 3~4시간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여전히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야외 촬영을 하고 스튜디오 녹화를 하고... 드라마와 완전히 헤어지지 못했던 거죠.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네요.”

지난 10월 드라마 <동이>가 끝난 후 이제야 드라마와 ‘진짜 이별’을 한 것 같다는 이병훈 감독.

드라마가 끝났다는 걸 실감하기까지 꼬박 반년이 더 걸렸다.

총 촬영 기간 11개월, 방영 기간 6개월 동안 더위와 추위, 잠과 씨름하며

보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극 촬영에서 가장 힘든 점은 더위와 추위를 무턱대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더위도 마냥 옷을 벗을 수 없고, 추위도 옷을 꺼입을 수 없잖아요. 공간에서 오는 제약도 많고요.

추위와 더위를 피해 찍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촬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야외 촬영 비중도 크게 늘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야외 촬영 비중이 10~20%였다면 지금은 50~60% 이상이 됐어요.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더 고된 현장을 견뎌야 하는 셈이죠.”

그런 현장을 견뎌면서 그가 꿈꿔왔던 건 단 한 가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극”을 만드는 일이었다. 99년 <허준>부터 최근의 <동이>까지 총 6편의 사극을 통해

다음 드라마에서도 지금 시대에 유효한 인물 발굴할 터

허준 · 대장금 · 동이 등
최고시청률 사극 만든 ‘사극거장’

그는 꿈을 현실로 바꿨고 그의 이름 앞에는 어느새 ‘거장’이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니기 시작했다.

“허준”을 기획하면서 4가지의 원칙을 세웠어요. 사극을 전혀 써보지 않은 젊은 작가와 작업을 하고, 의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대사를 현대어로 쓰자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사극이 갖고 있던 기존의 틀과 관습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한 거죠.

당시 사극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최완규 작가를 영입하고 무채색 일색이던 사극 의상을 원색과 파스텔톤으로 바꿨어요. 당시 유행하던 뉴에이지 음악에 우리 전통 음악과 아일랜드의 갤릭 음악을 접목한 음악을 드라마 OST로 썼어요.

주인공의 테마곡으로 피아노곡이 흘러나왔으니 시청자들이 놀라는 건 당연했죠. 대사를 현대어로 바꾼 것은 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드라마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것 같아요.”

당시 <허준>은 최고 시청률 63.7%를 기록하며 ‘40대 이상이 보는 드라마’에서 ‘10대도 보는 드라마’로 사극에 대한 인식을 바꿨고, ‘우리나라 사극의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13년간 <상도>, <대장금>, <서동요>, <이산>, 최근의 <동이>까지 작품마다 시청률 20~30% 이상을 기록하며 ‘이병훈표 사극’은 전 세대가 보는 가족 드라마가 됐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한류의 중심에 섰다.

“허준”은 사실 절박함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96년에 TV제작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만드는 작품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장으로 다시 쫓겨난 셈이었죠.

하던 게 사극이었으니 다시 사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돌아와 다시 사극을 한다니까 당시 대학에 다니던 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사극은 재미없고 젊은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 딸도 보는 사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만든 작품이 <허준>이었어요.”

이후 그는 드라마를 기획할 때마다 역사 속 인물을 동시대에 살아 숨쉬는 인물로 재탄생시켰고 역사 속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허준> 통해

기존 사극 드라마 틀 깨

의상은 무채색에서 원색
음악에 뉴에이지 피아노 등 도입
작가는 사극 안 써본 젊은 작가
10대도 보는 사극 드라마로 제작

대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재미와 교훈을 넘어 시청자와 진정한 교감을 하는 게 드라마를 통해 그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몇 백 년 전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상도”를 통해 현대인의 가장 관심사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서동요”는 당시 문제가 됐던 이공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 이야기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됐어요.

“이산”을 통해서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훌륭한 지도자상을 그리고 싶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음 드라마에서도 이런 주제 의식이 바탕이 된 역사 속 인물을 살려낼 생각입니다.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회원 동정



김수랑(기슬)

김수랑(기슬)
9대 총장으로 재선임
공주영상대학총장을
2월 임기마감을
앞두고 다시 9대 총
장으로 연임돼 2013
년 2월까지 공주영상
대학 발전에 힘쓰게
됐다. 김총장은 2005년부터 5~8대총
장을 역임해왔다.



김명철(명제)

김명철(명제)
GTB강원방송사장 취임
국회방송기획관
3월 28일 강원방송
제 3대 사장으로 취
임했다.
임기는 2014년 2월
까지 3년이다.



주철환(명제)

주철환(명제)
JTBC제작본부장 취임
前 경인방송 사장
3월 중순 중앙일보
종편채널인 JTBC제
작본부장으로 취임
했다.



신대근(보도)

신대근(보도)
대한 언론인회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前 대구MBC사장
3월 28일 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대한
언론 300호 기념 대
토론회 제 1 주제
“한국정치의 포퓰리즘” 색션에서 성
병욱 前중앙일보 주필과 함께 토론
자로 참석했다.



김진홍(관리)

김진홍(관리)
문비회 차기회장으로 선출
사우회 바둑클럽총무
3월6일 열린 문비회
(비상계획부출신사
우모임) 정기모임에
서 차기 회장으로 선
출됐다.



하동근(보도)

하동근(보도)
JEI 재능방송사장 취임
前 iMBC사장
3월21일 영어전문교
육업체인 재능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하사장은 재능그룹
(JEI) 최고전략책임
자(CSO)도 겸하게 된다.



함명철(보도)

함명철(보도)
iMBC 사외이사로 선임
前MBC보도국논설
위원
3월 25일에 개최된
iMBC 주총에서 사외
이사로 선임됐다.



권혜옥(감사)

권혜옥(감사)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취임
前의원, 4월 5일 대한민국 헌정회 신
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최영근(명제)

최영근(명제)
초록밴 미디어 사장 취임
前 MBC제작본부장
3월 말 드라마를 만
드는 독립제작사 초
록밴 미디어 사장으
로 취임했다.

한박무(보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위위원
3월 31일 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 됐다.
임기는 2014년 3월
까지로 3년간 활동한다.



박선영(보도)

박선영(보도)
선진당 정책위의장 맡아
국회의원
3년간의 장수 대변인
생활을 마치고 3월 30
일 정책위원회의장으
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국회의원선거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도 받았다.



차인태(ANN)

차인태(ANN)
OBS로 20년만에 방송복귀
前 제주사장
OBS경인방송토코
쇼 프로그램 “명불
허전”(매주 화 밤 10
시)의 MC로 20년
만에 방송계에 복귀
했다. 차회원은 첫 방
송으로 4월 5
일 성공회 김성수 대
주교편을 녹화해 방
송했다.



박기병(관리)

박기병(관리)
대한언론인회 공로패 수상
前 강원방송사장
재직시 언론장단에
লেখে গুরুত্বপূর্ণ 1
24일 대한언론인회
가 수여하는 공로패
를 받았다.

여수 MBC 2011년 연중캠페인

박람회의 성공,
지역민이 만듭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MBC 가 함께 합니다.



[HTTP://WWW.YSMBC.CO.KR](http://www.ysmbc.co.kr)